



호국안민기원법회 법어

“불공 공덕 국가와 못 중생에 회향하는 자리”



효강
(불교총지중 종령)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무연중생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응명정진하신 총지중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의 공덕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총지중은 창종 이래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여 불공을 으뜸으로 여겨 왔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의

해탈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불공을 우선시 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총지중에서는 일찍부터 다 종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호국가불사를 비롯하여 통일의 염원과 재난불생, 산업발전과 국민안민의 염원을 담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 왔으며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로서 그동안의 불공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회입니다.

그 동안의 법회는 살아 있는 생물을 방생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면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법회는 그러한 방생의식 뿐만 아니라 법회를 통하여 고통의 굴레에 묶여있는 모든 불쌍한 중생들의 자유로운 삶을 기원하며 그들을 삶의 질곡에서 방생시켜주는 인간방생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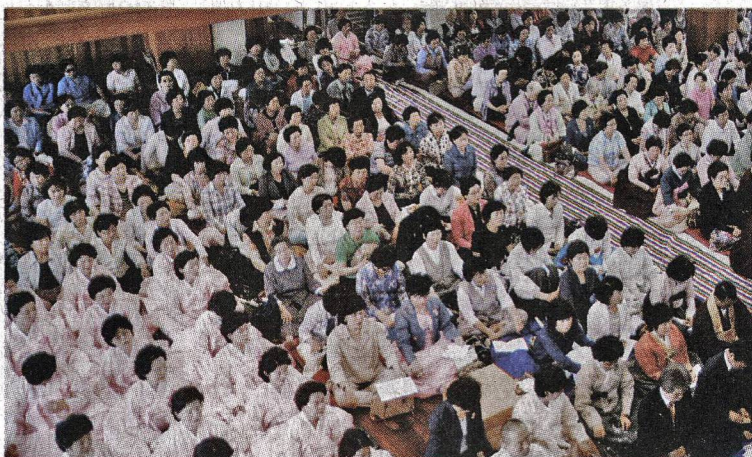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

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법회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법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회의 의미를 잘 새기시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총지중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아무췌로 여러분의 불공공덕으로 나라와 사회가 바로 서고 평화로워지며 선망부모와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하옵고, 가족과 권속들 모두 건강하며, 일체 재난은 즉시 소멸되고 사업은 더욱 번창하며, 지혜와 수복이 길이 빛나 청정한 가택도 랑으로 거듭 나기를 불보살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하반기 49일 불공 오는 15일 회향

효강 종령, “국가와 일체중생 위한 불공”



▲ 총지중 정각사 교도들의 불공 정진.

불교총지중은 오는 7월 15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9년 하반기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불사를 봉행한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우리 총지중은 나 하나만의 고통 해탈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일체중생의 복락을 위하

여 불공공덕을 회향해 왔다”며 “매년 49일 동안 진호국가불사를 비롯해 조국 평화통일과 재난불생, 산업발전의 염원을 담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왔고 이를 창종 이래 종단의 종지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종령 예하는 또 “특히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

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기도 하다”며 이는 “부모조상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기원하는 불교의 생명 존중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조법설집엔 “49일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기원하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종조법설

평생 행복은 불퇴전에

하루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철일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함에 있고 한달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고 일년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고 평생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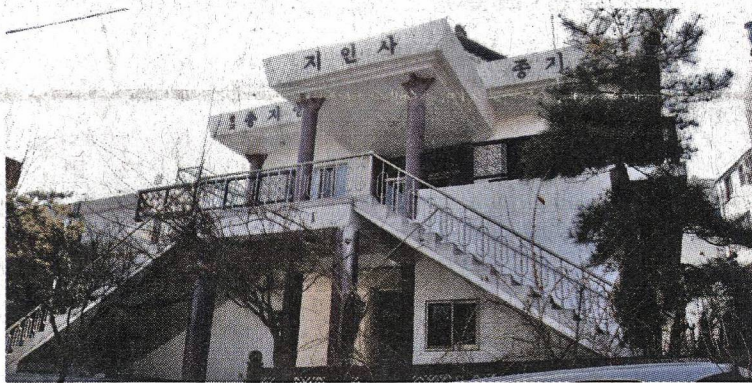
기사제보

총지중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bota32@hanmail.net

총지중 교도 기업, ‘신양큐비스’ 보시행

지인사에 무상 인테리어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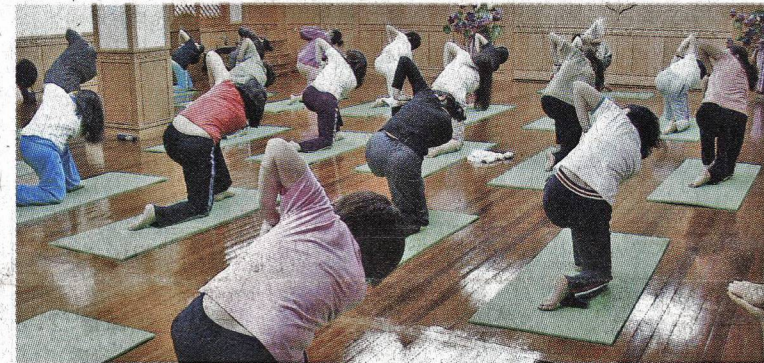
▲ 지인사 전경.

총지중 교도인 김한옥 각자가 무주상 보시행을 베풀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인천 지인사의 석가탄신불 축법회에 참석했던 각자가 사원을 둘러보던 중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시공해드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이 진행되었다.

김한옥 각자는 “항상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왔지만 실천을 해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번 초파일에 보시행을 하게 되어 무엇보다 마음이 뿌듯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김한옥 각자가 운영하는 ‘신양큐비스’는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의 건물 화장실 칸막이를 생산, 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다. 김한옥 각자는 조선일보를 퇴직하고 창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등 축적된 기술과 건설한 경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 총지요가 강좌 모습.

총지 문화센터 가동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 강좌 다양

지역사회 문화 증진과 함께 종단 홍보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총지문화센터가 운영된다.

주요 강좌 프로그램은 요가(강사: 이한상, 우애란)를 비롯해 벨리댄스(강사: 이호정), 아로마테라피(강사: 박주현) 등이다.

요가는 임산부와 주부, 직장인을 위한 강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강사 이한상 씨는 인도 현지에서 정통 요가 실수를 한 베테랑 강사로, 그동안 총지요가 강좌를 운영해 왔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동방불

교대 요가관련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총지문화센터 강좌의 개강은 매월 1일(아로마 테라피는 8월부터)이며, 각 프로그램별로 월~금요일 주중 1~3회 마련된다.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7시 시간대가 있으며 전 강좌는 역삼동 총지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벨리댄스 강좌에서는 선착순 30명에게 힙 스커트를 무료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혜숙 교무(02)3452-748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49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기원, 조상 천도 위한 정진”

불교총지중 전국 각 교구는 총기 39년 해탈절을 맞아 7월 16일 하반기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는 서울경인 교구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하늘사랑 야영장’ 일대에서, 대구경북 교구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농월정에서,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 교구가 문경점촌 등지에서 각각 법회를 연다.

서울경인 교구는 산하 사원별로 오전 9시까지 여주휴게

소에 집결해 괴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여타 교구도 자체 교통편을 마련해 각각 법회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법회는 대비로자나 불전 호법, 유가삼밀, 봉행사, 축가 합창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 후 교구 산하 사원 스승과 교도 등의 화합한마당 노래공연과 장기자랑 등도 마련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이번 기원대법회 관련 법어에서 “우리 종단 내의 전 승지와 교도들이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

한 호국 기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위하여 응명정진했다”며 “이제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의 공덕이 오늘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해탈절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목은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배우는 자리”라며 “이번 법회의 동참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이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서울·경인교구]

◆ 일시: 7월 16일

◆ 장소: 충북 괴산 하늘사랑 야영장

[부산·경남교구/충청·전라교구]

◆ 일시: 7월 16일

◆ 장소: 경북 점촌 영신유원지

[대구·경북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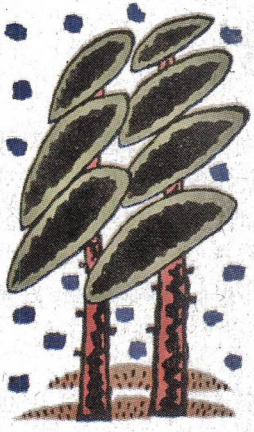
◆ 일시: 7월 16일

◆ 장소: 경남 함양 농월정



풍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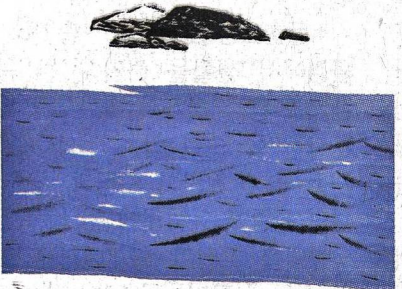
보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탐욕스럽고 인색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대는 다섯 가지 큰 보시를 행할 수 있는가?” “저는 쌀 한톨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큰 보시다. 그대는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는 일이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큰 보시인데 행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으니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이용범(소설가)

운명보다 무서운 것은



세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하여 체념하였고, 또 한 마리 개구리는 도무지 우유통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한숨만 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진 현실을 직시하고 코끝을 밖으로 내놓은 채 침착하게 해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개구리의 발끝에 무엇인가 닿기 시작하였습니다. 개구리가 해법을 치는 동안 우유가 굳어 버터가 되었기에, 세 번째 개구리는 무사히 우유통을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이 아닐까요?

장용철(시인)

네 부류의 사람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나 나쁜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어두운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쁜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간다면 운명은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박경준(동국대 교수)



내용참조: “불교총전” 정경판 352p

이달의 명상 물 흐르고 꽃은 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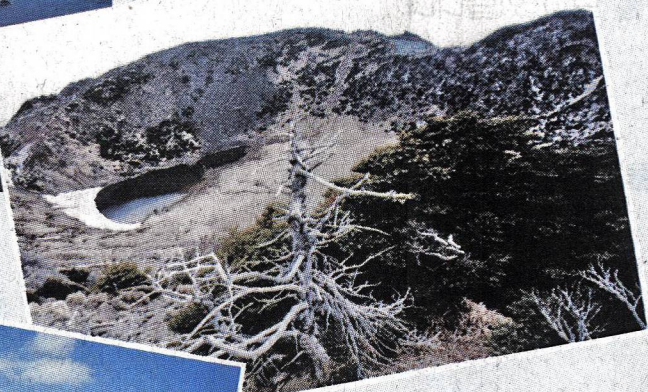
萬里青天
雲起雨來
空山無人
水流花開

구만 리 푸른 하늘에
구름 일고 비 내리네
빈 산에 사람 없이
물 흐르고 꽃은 피네

- 황산곡(黃山谷)

· 황정견 [庭堅, 1045~1105]: 호 산곡(山谷). 고전주의적 작풍을 지닌 중국 송나라의 시인 겸 화가.

바다와 하늘이 마주하는 곳, 펜션 바하마(BAHAMA)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

함덕 해수욕장 근처 해안도로에 자리잡은 펜션 바하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구조: 쓰리룸(거실 포함) 3실 / 원룸 4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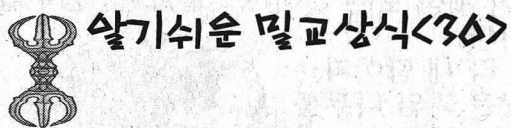
★ 6월 오픈

주소: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 920번지

전화: 010-9032-7114 / (064)782-7822

대표: 조 경 숙 (충지사 교도)

010-8900-8917
(130호~)



밀교와 주법(呪法)

밀교는 어떻게 주법을 수용하게 되었는가?

화 령

(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원래는 의례와 주술(呪術), 주법(呪法) 등이 불교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초기 불교에서는 주술을 금지하는 듯한 인상마저도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 주법 금지의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주법이 최고의 깨달음, 즉 열반을 추구하는 출가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그 당시의 주법이 제재초복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속세의 안녕과 현실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출가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출가자가 재가신자에 대하여 스스로의 생활수단으로서 주법을 행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출가자가 오직 곁집에 의지하여 생활하며 주법을 베풀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법이나 주술의례가 출가자의 바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주법을 금지했던 것은 불교적으로 순화되지 않은 바리문 위주의 주술과 의례에 한한 것이었다. 뒷날의 다듬어지고 갖추어진 밀교의 주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훌륭하게 극복되어 중생교화와 성불의 목적을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아타르바 베다」를 근간으로 하는 바라문의 주법과 의례가 오로지 현세이익만을 추구하는 세간성취법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대승 철학과 정신이 충만한 순수밀교에서는 세간성취법이 그대로 성불법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간편하였던 대승불교의 수행법이 교화의 발전과 함께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민중들과의 괴리(乖離)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언을 위주로 하는 간편한 수행법이 민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들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처음에는 바라문의 의식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점차로 여기에 고도의 불교철학을 가미하여 민중들에게 저항없이 불교가 받아들여지도록 했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중생의 세간적 이익추구라는 면을 무시하지 못한 점

위하여 처음에는 그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바라문 의식이나 기타의 전통적인 의식을 이용했지만, 그러한 것들에 점차로 대승적 철학이 가미되어 밀교의 세련되고 고도화된 의례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 것은 밀교의 경전이나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전통의 의례와 의식들이 불교에 흡수되기 전에도 이미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불타(佛陀)와 불법(佛法)에 의지하여 신비적인 힘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불교사상의 진수(眞髓)가 어디에 있던 간에 대부분의 불교



▲ 존제주의 원류 존제보살.

『반야경』에 있어서도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 자체가 대명주(大明呪)라고 설하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 지니는 것만으로도 갖가지 재해(災害)를 면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대품반야경』을 주석한 『대지도론』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주술(呪術)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도(外道)의 주술과 반야바라밀의 주(呪)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즉 외도의 주술은 단순히 사람들의 세간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욕망의 흐름에 따라 갖가지 악업(惡業)을 지을 따름으로 지옥 등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반야바라밀의 주는 모든 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주이며, 사람들에게 선(善)을 생각하게 하고 갖가지 집착심을 없애고 지혜를 얻게 하는 대명주이며, 무상주(無上呪)이며, 무등등주(無等等呪)라고 설하고 있다.

반야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축소된 형태의 『반야심경』은 이 경전 자체를 더할 나위 없는 주(呪)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불교가 주법(呪法)을 수용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교화, 성불 목적

반야심경, 경전 자체를 주(呪)로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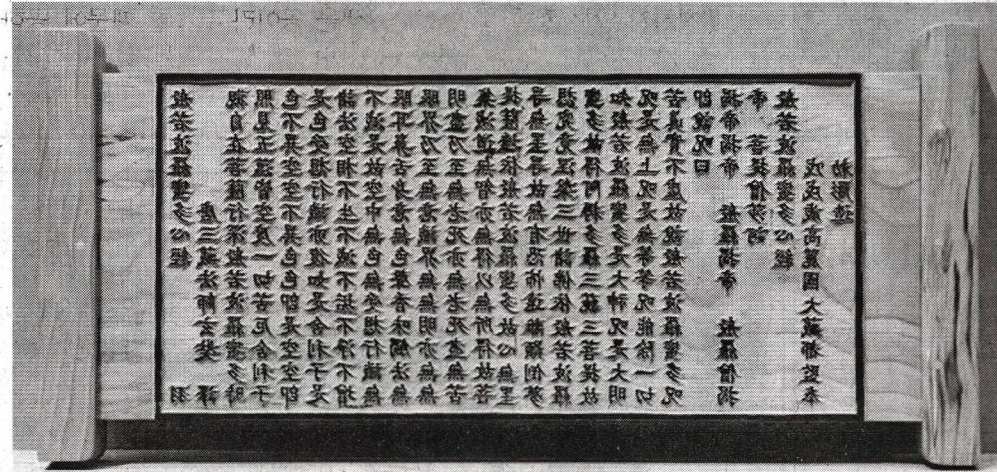
이 있다.

밀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하근기 중생을 교화하기

도는 불타 혹은 삼보(三寶)에 대한 귀의문 자체에 큰 힘이 있다고 믿어왔다.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밀교경전의 하나인 『공작왕주경』에는 '나무불타'를 의우는 것만으로도 큰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법화경』(방편품)에 산란한 마음으로 불탑 가운데에 들어가고 한 번만 '나무불'을 외우면 불도(佛道)를 이룬다고 설한 것도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초기 대승을 대표하는



▲ 경전 자체를 주(呪)로 삼고 있는 반야심경.

총기동의보감

습한 장마철의 단골손님..... 고질적인 허리통증!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습한 날씨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고질적인 허리병인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특히 30대 이후의 여성들 중 자궁 후굴이거나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골반염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골반 주변순환의 저하와 근력약화로 요통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다.

요통의 종류와 원인을 보면

*신허요통(腎虛腰痛): 무리한 성생활과 과도한 출산으로 인해 생식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난다.

*담음요통(痰飲腰痛): 평소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차가운 여성의 경우 소화작용의 부산물로 생기는 담음이라는 물질이 기혈의 순환을 막아 통증을 유발한다.

*어혈요통(瘀血腰痛): 출산이나 분만 후 혹은 유산이후에 조리가 부족해 자궁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혈이 남아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

스트레칭, 운동으로 근육 이완해야

흔히들 남녀노소 통틀어 전체인구의 80% 이상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두 번쯤은 겪고 넘어가는 일상적인 증상 중 하나인 30대 후반이후의 중년여성의 요통은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폐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내에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출산전후로는 손상된 기혈과 이완된 근육의 회복이 더디지면서 허리의 손상이 오게 되고 폐경기에는 골다공증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 요통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보통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요통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나쁜 자세나 자궁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매달 생리를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생리통, 생리불순에 동반되는 기능적인 요통과 척추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기질적인 요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풍한요통(風寒腰痛): 춥거나 습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거나 찬 음식을 즐기고 평소 체력과 하복부를 노출하는 의복을 즐겨 입는 여성들의 경우 차고 습한 기운이 자궁과 골반에 머물러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 의하면 '허리는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기다. 허리통증은 장차 내부장기의 기능저하와 이상을 나타낸다'라고 나와있다. 이는 허리가 인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평소 생리를 통해서 자궁건강 여부를 체크하고 출산, 유산 후에는 어혈 배출을 통해서 자궁과 주변 생식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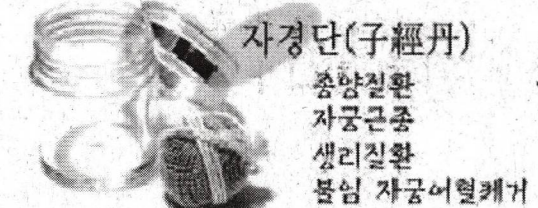
또한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경락을 풀어주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겠다.

상담문의 ☎ 02)545-0072

기사제보

총기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 bota32@hanmail.net



여성美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질환 요법(자궁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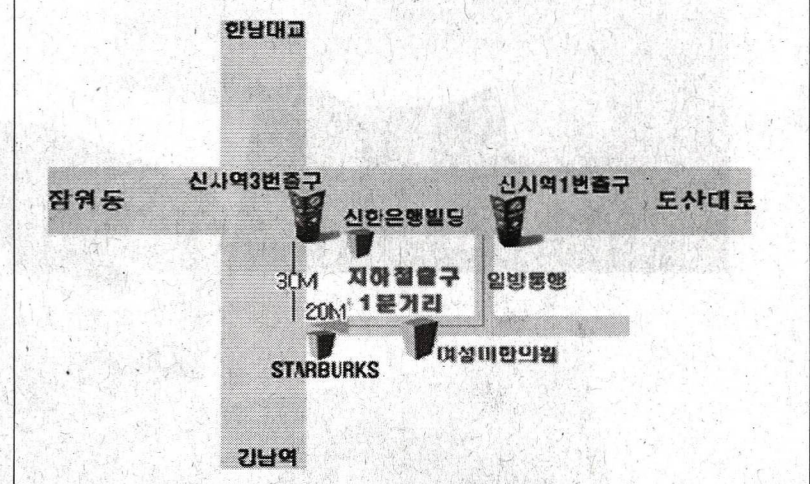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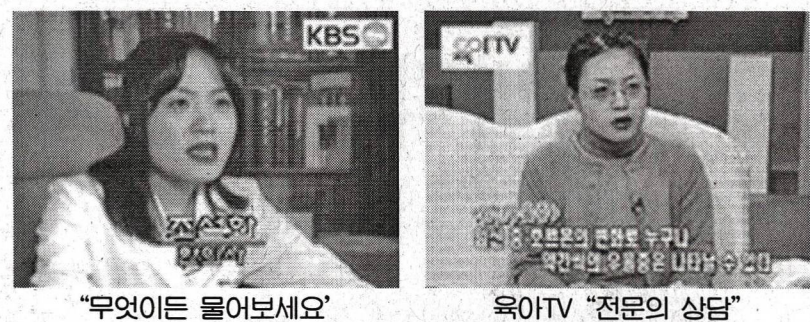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지상설법

정계(淨戒) 바라밀다



법공

기로스승

육바라밀은 비유컨대 성불을 향해가는 여섯 단계라 볼 때, 그 두 번째가 지계바라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시바라밀다를 마

치고 정계(지계持戒) 바라밀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계행(戒行)은 모든 선(善)의 기초

〈무생계경〉에 부처님께서 금강수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은 천 가지 성스러움을 이루는 땅이며 만 가지 착한 것을 이루는 터전이니 터전을 닦지 않고 어찌 성스러움과 착함을 세울 수 있으랴. 모래를 아무리 끓여도 밥이 되지 못하고, 흙에서 향을 구하면 마침내 얻지 못하는 것이다. 고해를 건너려면 자비의 배를 타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가려면 지혜의 횃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체중생이 계를 받아 지키지 아니하고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함은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니 계는 모든 중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율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의한 혜안(慧眼)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지키고 받들어 가집으로써 자신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일체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게 하신 덕목입니다.

계율은 매우 깊고 넓으며 또한 종류와 조

목(條目)도 매우 많아 우리가 다 받아 지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와 처지에 따라 알맞게 받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설하셨고, 또 계율의 본의(本意)만 알고 보면 누구라도 능력

(十重禁戒)가 있으며, 대소승 및 승속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48경계(輕戒)가 있으며 그 밖에도 무수한 대소경중의 계율들이 있습니다.

무릇 계율의 근본 뜻은 지악행선(止惡行善)입니다. 즉 중생들이 잘 몰랐거나 혹은 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계율은 누구나 한 가지라도 더 받아 지키면 자신에게 그만큼 더한 행복이 되는 양약(良藥)의 약방문과 같은 것입니다.

3. 지계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을 수지함은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음과 같고 또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다. 내가 열반한 후라도 계로써 스승을 삼고 계법(戒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나의 말대로 행한다면 비록 나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음과 같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항상 내 곁에 있어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음과 같느니라”

또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수행에 요점이 되는 삼학(三學)의 첫 번째가 계학(戒學)임을 보더라도 지계의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계행은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니

“지계 없이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함은 모래를 썬 밥을 만들려 하는 것”

것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2. 계율의 종류와 경중(輕重)

우선 자기가 지켜야 할 계율의 종류와 경중을 대강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대승계(大乘戒)와 소승계(小乘戒)가 있고 승속(僧俗)의 차별이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오계(根本五戒)를 비롯하여 출가사문이 지킬 사미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고 대승행을 닦는 보살이 지켜야 할 십중금계

고도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나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각과 착한 행동으로 고쳐 나가는데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곧 계율입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할 때 악업은 차츰 멀어지고 선업은 날로 쌓여 가는 요긴한 삶의 법칙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율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계율하면 출가승이나 무슨 도 닦는 이들이나 지키는 특별한 것으로 세간에 사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율법인양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 적멸의 즐거움

고귀덕왕(高貴德王)보살이 부처님께 물었다.

“무엇이 큰 열반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즐겁고, 진정한 나이고, 청정한 것이 큰 열반이요. 보살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괴로운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진실한 가르침을 보여 준다면 그것은 곧 큰 열반이요. 크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여래와 보살은 보기 때문에 큰 열반이라 합니다. 또 대아(大我)가 있기 때문에 큰 열반이라 하는데, 대아란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자유자재함을 말하는 것이요. 따로 구하는 일이 없으니 얻을 법도 없고, 허공처럼 모든 곳에 두루 차 있으니 없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요. 또 큰 즐거움이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선악(善惡)에서 벗어난 것이요. 모든 번뇌를 끊어 지혜가 원만하고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또 한결같이 청정하기 때문에 큰 열반이라 하는데, 온갖 청정하지 못한 것을 아주 끊어 몸과 마음과 행동이 청정합니다. 중생들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업의 싹을 말려 버린 중생이라

할지라도 나쁜 생각을 돌이켜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소.

열반에는 머물 곳이 없소. 다만 번뇌를 끊을 뿐이요. 열반의 경지는 이와 같이 영원하고 즐겁고 진정한 나이고 청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애욕의 즐거움이 아니라 적멸(寂滅)의 즐거움이요.”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涅槃經 高貴德王菩薩品〉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부처님께서 기원정사(祇園精舍)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外道)가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밝게 가려내어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그릇된 견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합하는 것은 괴롭든 즐겁든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둘째,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자재천(自在天)’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 셋째, 혹은 ‘인(因)도 없고 연(緣)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언제나 무엇이나 전생의 업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의견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래서 나는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탐욕과 성냄과 사탄 소견을 갖는 것도 모두 전생에 지은 업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은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재력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었다.

또 모든 것은 자재천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연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에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재력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바라문이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었다.

비구들, 이것이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비판이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되고 마침내는 커다란 혼

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과 악담과 이간질과 꾸미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 버린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법의 근본은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음에 있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풋타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중아함 삼도경 中阿含 三度經〉

◇ 반야바라밀의 방편

수부티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 밝은 지혜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새로 발심한 보살이 들으면 혹시 의혹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에서 방편을 찾지 못하고 선지식(善知識)을 얻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방편이란 모든 존재의 자성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밝은 지혜와 부합되는 마음을 말한다. 이 마음은 다른 다섯 바라밀까지도 충족시킨다.

이 잡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중생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 가르침도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의 보시바라밀이다.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살피면서 그 행동하고 살피는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지계(持戒)바라밀이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모든 법의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를 참고 기뻐하는 것은 보살의 인욕(忍辱)바라밀이다.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밝은 지혜에 어울리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은 보살의 정진(精進)바라밀이다.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서 조그마한 이기심이나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보살의 선정(禪定)바라밀이다. 이와 같은 방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반야바라밀을 들어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

색을 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은 본래부터 그 자체가 공한 것이다. 그밖에 다른 법도 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공한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보살의 자성이 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반야바라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보살의 선지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공해서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선한 수행도 공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조그마한 깨달음의 안일에 빠지지 않고 밝은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곧 보살의 선지식이다. 보살의 악지식(惡知識)은 육바라밀을 버리라고 하거나, 조그마한 이익에 머물러 자기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대품반야 환학품 大品般若 幻學品〉

진리의 여울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도 자재천의 뜻이고,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도 자재천의 뜻에 의한 것일 게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은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재력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었다.

그리고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에도 인과 연이 없고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에도 인과

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릇된 의견을 잘 가려내어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처럼 차근차근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소견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사리풋타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불선법이란 산 목숨을 죽이는 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일, 사음, 거짓말, 악담, 이간질, 꾸미는 말, 탐욕, 성냄, 그릇된 소견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불선법의 근본은 또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선법이란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세상사는 이야기

네 잎 클로버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온통 붉은 색깔로 물들이던 모습은 이제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동안 우리를 집안 최면에 걸리게 했던 붉은 악마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12번째 선수로 우리나라의 넘치는 힘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전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에 특별한 기억으로 각인 되었다.

원정 16강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 선수들을 맞을 준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와 같은 관심과 격려가 2014년에 개최 될 브라질 월드컵 까지 이어 저서 우리나라가 8강 넘어 4강까지 가기를 염원해 본다. 월드컵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감독과 선수들, 관계자들의 귀국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 동안 월드컵 중계를 보느라 밤

송두리째 잘려 나갔을 때 받은 충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내 마음도 무엇에 의해 잘려 나간 듯 한 쪽이 텅 빈 것 같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은 잘릴 때 말은 못하지만 그 아픔과 황당함을 어떻게 참고 견디었을까?

잘려 나간 꽃들을 볼 때마다 난 속으로 "어서 힘 내서 빨리 자라거라."하고 응원해 주었다. 내 응원이 헛되지 않아 그들은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들의 다시 일어서는 의지는 우리 인간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 아침 달콤한 빗물을 잔뜩 머금고 싱그러워진 모습에서 나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그 동안 잘린 풀들을 보고 자른 사람을 원망도 많이 했다. 꽃이라도 다 진 다음에 자르면 될 텐데 꽃이 무리를 지어 한창 예쁘게 피었는데

월드컵 16강 달성에 갈채

야생화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잠을 설쳤던 나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 곳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다. 월드컵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대지를 축축히 적해주고 있다. 흥분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진정 시켜 주듯이 골게 내리고 있다. 나무와 풀들도 빗물을 흠뻑 머금고 배부른 어린이이 같이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 한편으로 월드컵 때문에 그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다. 저마다 내게로 얼굴을 돌리며 손짓을 하고 있다.

'그래, 내가 보아 주지 않아도 너

화들 많아 자랐구나.' 무자비 하게 싹둑 잘려 나갔던 풀들과 야생화들이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어떤 것은 잘려나간 아픔을 딛고 여러개나마 조그만 꽃을 피우고 있다. 잘려나간 몸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자기의 의무이자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작은 힘까지 모두 쏟아 부었으리라.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어 다 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난 어느 날 야생화와 풀들이 잘려나갔을 때가 생각 난다. 내가 늘 아끼고 예뻐하던 녹지대의 풀들이

모두 잘라버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자른 사람도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다시 깨끗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원망 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늘 지켜보며 다닌다. 풀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땅에 납작 붙어서 자라는 클로버이다. 클로버는 여전히 잘 자라며 하얀 꽃을 가득 피우고 있다.

요즈음 난 다른 재미에 빠져 있다.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클로버 무리 앞에 조금씩 머무르다 집으로 향한다. 물론 네 잎 클로버를 여러 개 찾아서 책꽂이에 골게 넣어서 잘 말렸다. 야생화와 네 잎 클로버 골게 말린 것을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을 받고 기뻐할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에게 주려고 열심히 손질 하고 있다. 그는 말린 꽃으로 예쁜 소품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선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도 여러 번 예쁜 선물을 받았다. 이것을 받고 그는 이번에는 어떤 소품을 만들까? 기대가 된다.

-박묘정

불교설화 <45>

지옥도의 어머니를 구한 목련존자

백중, 우란분절 이야기

이 날이 불교의 큰 명절로 자리잡은 것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아귀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스님들의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자자일(自恣日)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했다는『우란분절』의 이야기에 기인합니다.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 대단한 부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 상전장자가 돌아가셔서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련은 유산을 3등분하여 일부는 어머니 청제부인의 생활비로 드리고, 일부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망령을 위해 3년간 매일 재를 지내 천도하도록 어머니께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목련 자신이 가지고 타국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떠날 때, 목련은 어머니께 아버님의 천도재를 당부하였지만 3년만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천도재는 지내지 않고 살생과 음주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목련이 출가한 뒤, 육신통을 얻어 해안(解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그러한 과보로 아귀지옥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련이 가슴 아파하며 신통력을 발휘하여 어머니를 아귀지옥에서 구해내고자 음식을 가져가

어머니께 올렸으나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 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지은 죄업이 너무 두터워 아라한이 된 목련존자도 어떻게 손을 써 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목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청하며 어머니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 너 혼자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구나. 음력 7월 15일 하안거가 끝나는 자자(自恣)일, 곳곳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모였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어머니께서는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이와 같이 성현대중께 공양을 올리면 선망조상과 현재의 부모님, 친족 영가들이 악도에서 벗어나 즉시 해탈하여 복락을 누릴 것이다. 부모

부모와 과거 일곱 생의 부모 영가를 위해서 꽃, 과일, 각종 음식을 갖추어서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부모와 조상 영가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우란분절은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대한 효행(孝行)의 발로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보듯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효행이란 다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을 비롯한 선망조고조상과 일체중생 그리고 법계의 일체고혼을 천도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망경에서는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 육도 중생이 나의 부모와 형제 아님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억겁을 윤회하고 또 윤회하면서 우린 수많은 많은 이들과 숱한 인연을 지어 왔습니다.

한 겁만을 보더라도 수 억만명 이상과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의 인연을 맺어 왔을 터이거늘, 억겁을 윤회하며 만난 인연이란 어떠한겠습니까?

지금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람들 나와 부딪치고 싸우는 사람, 사람들 하다못해 짐승들에서 파리 한 마리, 하찮은 미물까지 모두가 어느 전생에 나와 부모, 자식, 형제 지간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 분명 어느 한 생은 함께 한 인연이었다 해도, 과연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중생이 그대로 나의 부모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효심(孝心)'이 바로 불심(佛心)이란 말은 부처님의 효심은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보살심(菩薩心)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바로 나의 부모이며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란분절은 대자대비의 효심을 밝히는 날입니다. 작게는 부모님과 선망 조상님들의 극락 왕생과 해탈을 기원하고,크게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서원을 실천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로 이 날을 꼽는 것입니다.

-심일화



파주 보광사 감로불화 중 천도재 모습.

우란분절, 대자대비 효심을 밝히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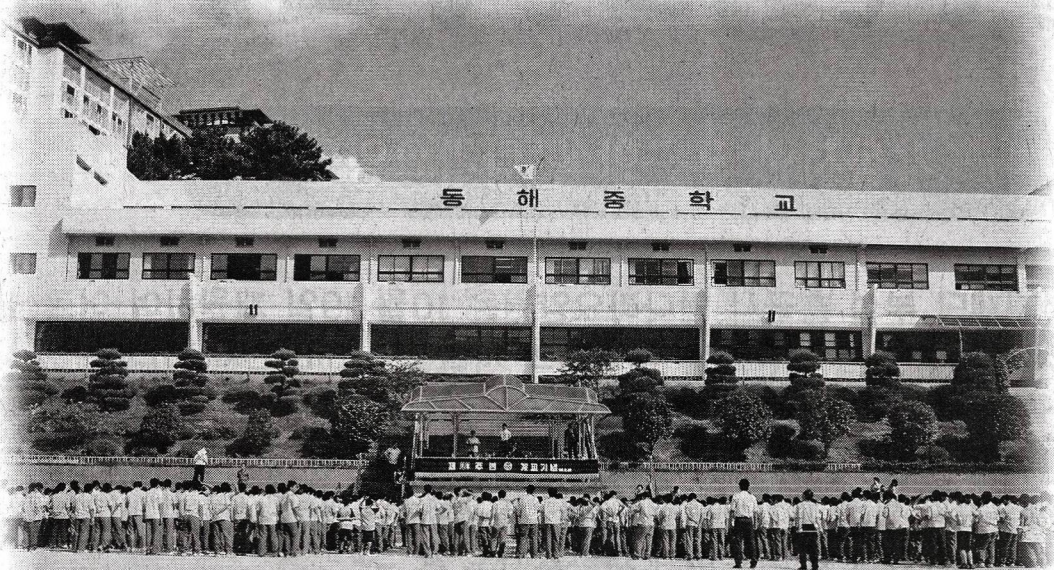
효심(孝心)은 곧 보살심(菩薩心)

가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부모의 여생이 행복하게 되고, 부모가 이미 떠났다면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란분의 우란(盂蘭)은 도현(倒懸) 즉,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분(盆)은 '구제한다, 여의게 한다'는 뜻으로 재(齋)를 베풀어 지옥과 같은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는 선망부모를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에는 재를 베풀어 온갖 영가들을 천도하는 천도재를 베풀게 되기에 우란분재(盂蘭盆齋)라고도 부르며, 우란분공(盂蘭盆供)이란 현재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수행의 길에서

휴대폰 참 어렵다

자 인 행 (운천사)

딸애랑 나는 얼마 전 휴대폰을 서로 맞바꾸었다. 딸애보다 내가 가진 휴대폰이 신형이고 또 나는 음성통화와 문자 주고받기 정도만 하는 터라 최신 휴대폰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 없고 해서 바꿨는데 휴대폰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다. 서로의 기기에 저장된 주소록과 사진, 각종 벨소리 등도 모두 바뀐 휴대폰으로 옮기면서 새삼 휴대폰의 여러 가지 기능에 감탄을 했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른 이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기능을 딸아이에게 설명 듣고 배우는데 몇 번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나에 게 마침내 딸애는 짜증스런 목소리를 내었고 나도 그만하라고 짜증내고 말했다. 소싯적에는 공부도 제법 했었고 똑똑하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었는데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컴퓨터를 켜고 휴대폰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46억5천만명이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통계를 봤다. 이는 세계 인구를 65억명으로 보았을 때 71%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 가입자가 4천5백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천9백97만명 중 9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수치다. 말 할 줄 모르는 어린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 90%에 해당되어 휴대폰을 쓴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음성통화와 문자 주고받기 그리고 알람기능과 시간보기가 전부이다. 카메라 기능도 있지만 사용이 서툴다. 하지만 딸이 휴대폰을 사용하

는 것을 보고는 저렇게 조그만 휴대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지 정말 놀란다.

통화와 문자메시지, 시계, 카메라 등의 기본기능 외에도 음악듣기, 동영상보기, 텔레비전 방송보기, 게임하기, 한영, 영한전자사전, 지하철 노선확인하기, 통장 잔고확인이나 송금 등의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모바일뱅킹, 메모 일정관리, 스톱워치, 영상통화 등등...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나열한 기능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부터 인터넷과 문서 작성 등 PC에서 가능한 기능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된다고 하니 그저 놀라기만 하다.

너나 가지 기능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나도 외출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휴대폰이다. 가끔 깜빡하여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할 때가 있

다. 그때는 혹시 휴대폰으로 무슨 연락이 오지 않을까 별로 중요한 연락이 올 때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불일도 미처 못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종종 있었다. 또 집에 있을 때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머리맡에 둔다. 휴대폰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용품이 되어버렸다.

사실 나는 컴퓨터도 메일 보내고 받기, 그리고 약간의 인터넷서핑만 하는, 컴맹을 겨우 면한 정도이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기본 기능만 겨우 사용하는 폰맹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에는 휴대폰 기능들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라도 폰맹에서 벗어나고 말겠다는 결심해보지만 잘될 것 같지가 않다. 자동차 운전도 그렇고 나는 기계만지는 것이 정말 싫다. 아~ 휴대폰 참 어렵다.

우리들 이야기

쉬어가는 길목에서...

살다 보니
돈 보다
잘난 거 보다
많이 배운 거 보다
마음이 편한게 좋다.

살아가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내가 살려 하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게 다가 아닌
마음이 편한 게 좋다.

사람과 사람에 있어
돈보다는 마음을
잘남보다는 겸손을
배움보다는 깨달음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대함에 있어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물의 한결같은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산다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너 때문이 아닌 내탓으로
마음의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맑은 정신과
맑은 눈과
깊은 마음으로
눈빛이 아닌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일송정(진언행자 카페
cafe.daum.net/chongjisa)

이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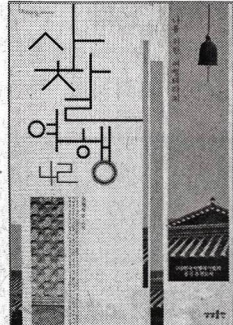
탁발순례 오 년의 여정을 돌아본다.

영원보다 긴 시간

사찰여행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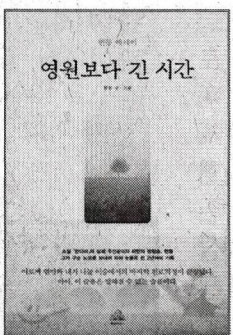
현몽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유상철 지음/ 상상 출판



여행전문가이자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걸으며 만난 42개의 사찰 기행문을 담고 있는 책. 사찰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절과 관련된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건도 자세히 소개해 흥미를 높이고 있다.

저자는 사찰여행은 나조차도 잃었던 나 자신을 찾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찰여행은 '나를 위한 여행테라피'라는 것이다. 추천하는 여름 산사 3곳은 '마곡사', '미황사', '해인사'다. 마곡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나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지비 명상 템플스테이'와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마음을 조절하여 자연을 즐기는 '맨발 산행'이 가능하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집으로 유명한 미황사에서 서서 내면의 울림을 듣고 다도해에 시선을 두면 무한한 사색에 빠져든다고 한다.



소설 『만다라』의 실제 주인공이자 파란의 방랑승, 현몽

그가 구술 노모를 보며 피와 눈물로 쓴 2년여의 기록

저자 현몽은 삶의 허무를 느끼고 19살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간 후, 하산과 입산을 거듭하며 수행과 기행을 하였으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 『만다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는 '전국의 산하를 떠돌았고 급기야 동남아와 서남아, 남미로까지 밀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의 신도 한 명 찾아오지 않는 가난한 절 장경사에 집을 풀고 똥 푸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다가 늙으신 어머니와 해후하게 된다. 어머니와 4년간을 오순도순 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어머니가 넘어져 척추를 다치고 점점 병세가 깊어져, 2년간을 병마와 싸우다 결국 죽게 된다.

『영원보다 긴 시간』은 저자 현몽이 2년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기록한 것이다.

생활상식

- ▲ 카페트에 껌이 묻었을 때
얼음을 비닐 봉지에 넣어 껌 위에 올려 둔다. 껌이 말랑말랑하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탁솔로 벗겨내면 쉽게 떨어진다. 그 뒤에는 카페트를 세탁솔로 잘 손질해 두어야 한다.
- ▲ 여러 종류의 얼룩 제거하는 법
☞ 주스, 콜라 - 곧바로 지을 경우에는 소금물로 적신 가제를 이용. 오래된 경우에는 중성 세제를 이용.
☞ 술 - 곧바로 지을 경우에는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어 제거한다.
☞ 홍차, 커피 - 탄산수를 이용. 밀

- 에 손수건을 깔고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묻힌 천으로 두드려 닦아 낸 다음 물 수건으로 마무리한다.
☞ 김치 국물 - 얼룩 안팎에 양파즙을 발라 놓고 하루 지난 후에 물로 씻어 낸다.
☞ 케첩 - 일단 물 수건으로 씻어낸 후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닦아 내고 물로 씻는다.
☞ 파운데이션 - 벤젠이나 휘발유를 거즈에 묻혀 두드린 후에 비눗물로 닦아 낸다.
▲ 옷을 삶은 것처럼 세탁하려면
옷을 세제에 비벼서 투명한 비닐에 넣어 봉한 후에 햇볕에 놓아 두었다가 세탁하면 마치 삶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불교상식⑦

향, 초 공양

향과 초는 자기 몸을 태워 맑은 향기와 맑은 빛을 냅니다.
향은 여러가지 모양과 빛깔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함께 몸을 태울 때 그 연기는 하나로 뭉칩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화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초는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맑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죠.
이렇듯 향과 촛불을 불전에 공양하는 일엔 화합과 희생으로 우리 마음을 향기롭고 빛나게 하고 더 나아가 탁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밝히겠다는 서원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윤우채 기자

총지종 보리자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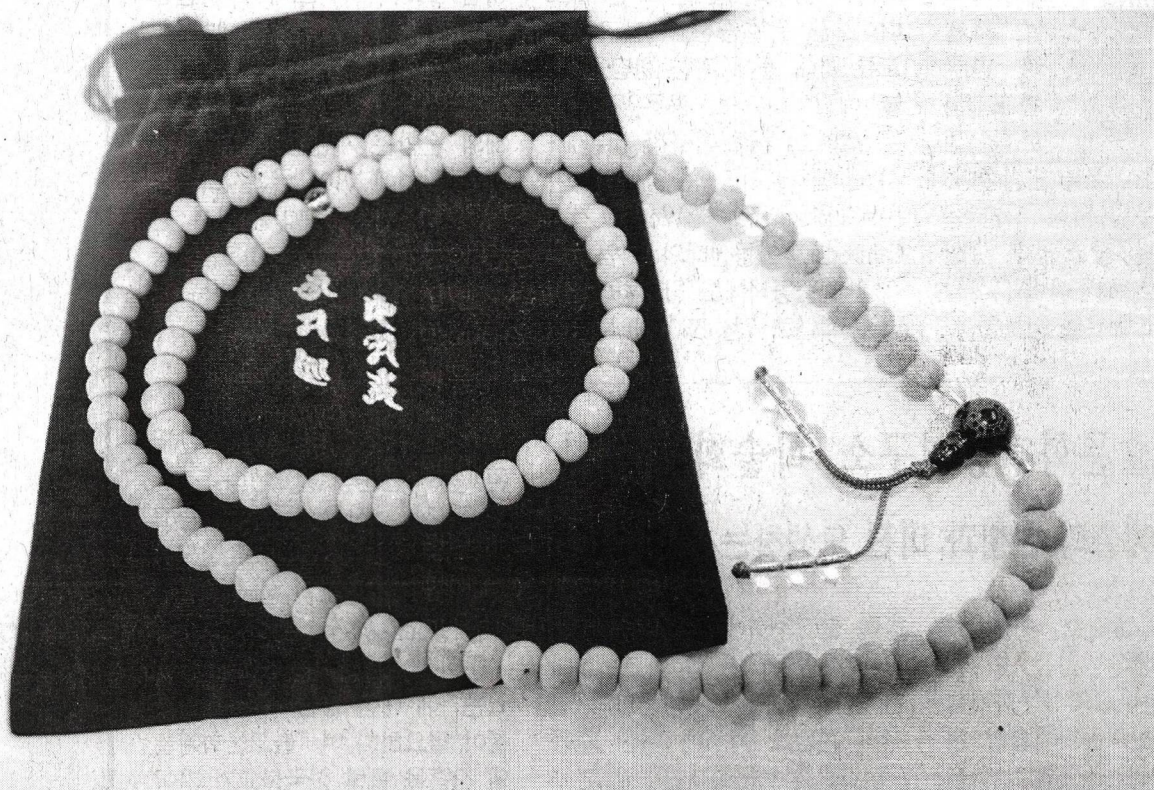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보리자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정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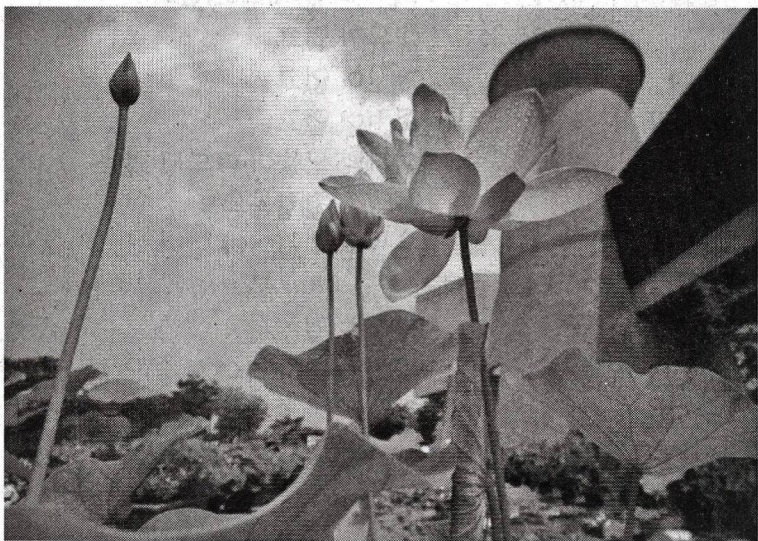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연꽃씨앗 700년만에 개화

‘아라홍련’ 명명 2009년 성산산성서 발굴



▲ 700년만에 개화 한 아라홍련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산산성(사적 67호)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연(蓮) 씨앗이 700여 년 세월을 건너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웠다.

7월 함안박물관에서 공개된 연

꽃 두 송이는 꽃 가장자리에 붉은 빛이 약간 감도는 담홍색을 띠었다. 함안군은 함안이 아라가야(阿羅伽伽)였던 점에 착안해 이 연꽃을 ‘아라홍련’이라 부르고 있다.

아라홍련은 지난해 5월 발굴된 연 씨앗 10개 가운데 함안박물관이 싹을 틔우고 대형 화분에서 기른 것. 박물관 성재기 운영담당은 “정상 성장한 연뿌리를 2포기로 나눠 심었으며 뿌리가 큰 포기에서 6일 꽃 한 송이가 핀 데 이어 7일 작은 포기에서도 꽃이 피었다”면서 “뿌리가 큰 포기에는 4개, 작은 포기에는 5개의 꽃망울이 맺혀 있어 8월 말까지 계속 꽃이 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예전문가들은 아라홍련이 700년 세월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연꽃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어 연꽃 계통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성산유적 지하 4~5m 토층에서 연 씨앗 10개를 발굴한 함안군은 연대 확인을 위해 2개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보내

각각 650년 전, 760년 전의 고려시대 씨앗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8개 가운데 5개는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는 함안박물관에서 싹 틔우기를 시도해 각각 2개, 1개가 발아했다. 연 씨앗의 생명력은 1만 년에 이르며, 일본에서는 2000년 된 연 씨앗이 발아해 꽃을 피운 적이 있다.

진각논문대상 당선작 발표 2개분야 6편 선정

제12회 진각논문대상은 5월 14일 논문계획서 접수 마감하고 6편을 선정했다. 이번 당선된 논문은 △불교 일반분야에서 고려 후기 총지종의 활동과 성격(김수연) △잔드라기리파의 유식학과 비판(김현구) △계체(戒體)를 통한 불교윤리 연구(김현진) △출가의 동기를 통해서 본 남성 수행자의 깨달음(이길주) △정법(淨法·kappa)의 발달을 통해 본 율(律)의 역할(이자람)이며 △밀교일반분야에서 금강계 37존도의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최성규)이다.

광덕 스님 사상·불광운동 연구한다

불광연구원 개원...5년 간 50개 주제로

인물·사상 등 한국불교 제반문제도 연구

서울 불광사(회주 자홍 스님)가 금하(金河) 광덕 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불광연구원을 개원한다.

불광사는 7월 10일 오후 2시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불광연구원 개원식 및 제1차 광덕사상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불광연구원은 기본과제로 광덕 스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개원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학술연찬회를 개최하고, 광덕 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광덕 스님에 대한 연구는 5년 동안 5개 분야에 걸쳐 총 50개 주제로 진행된다. 1차년도에는 광덕사상 연구, 2차년도에는 광덕 스님 사상의 현대적 조명, 3차년도에는 불광회와 불광운동의 재조명, 4차년도에는 불광사의 미래비전 모색, 5차년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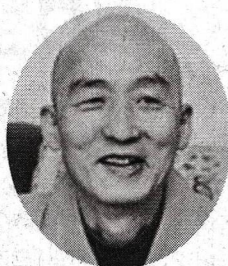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미래비전 제시, 1차년도인 올해는 5차에 걸쳐 10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학술연찬회가 끝나면 원고 수정·보완 후 학술총서로 발간한다.

불광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소’를 설립해 불교가 나갈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광덕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한국불교가 직면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폭 넓게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인물, 사상, 신행, 전법이라는 네 가지 연구범주를 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한다.

인물분야는 광덕 스님의 사상과 전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해 불광행사의 신행지표로 삼기 위한 과제다.

사상분야는 현대적 상황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용 불교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



광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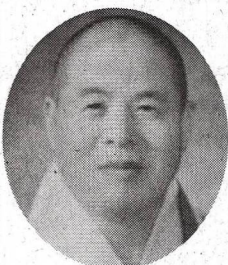
국불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다. 신행 분야는 인물과 사상을 통해 체득된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광행자가 견지해야 할 사상적 원칙과 신행 모델을 찾기 위한 과제다. 전법 분야는 불법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포교학의 새로운 전범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다.

연구 실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에는 서재영 박사(전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가 위촉됐다. 객원연구진으로는 석길갑 금강대 연구교수,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 김영진 인하대 연구교수, 최원섭 성철사상연구원 연구원, 이진영 동국대경원역경위원, 이종수 원각사상연구원 연구원이 위촉된다.

조계종, 세계와도 소통 활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캄보디아·미국 잇따라 방문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해외복지시설 지원과 한국 불교 홍보를 위해 캄보디아와 미국을 순방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최근 “총무원장 스님이 7월 19~23일 캄보디아를, 9월 16~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의 캄보디아 방문기간 동안 시아모니(Norodom Sihamoni) 국왕과 훈센(Hun Sen) 총리, 캄보디아 불교 종정 테풍 스님을 만나 한-캄보디아 간 우호증진과 불교문화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로터스 월드(이사장 성관)가 시애틀에서 운영 중인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아동센터의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스님은 지난해 7월 BWC센터를 방

문해 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9월 16~22일 미국 뉴욕 순방기간 동안 총무원장 스님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평화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 해외특별교구 미국 동부지역 간담회, 뉴욕지역 대법회 참석을 통해 미주불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9월 20일 뉴욕 맨하탄 스카이라이트에서 사찰음식의 날 행사와 템플스테이 국제 홍보 등을 펼친다. 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잇따른 해외 순방은 지난날 한·일불교 대화 참석에 이어 국제사회와도 소통의 기회를 폭넓게 가져 한 국불교의 위상을 재고하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 방향(손태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박상진 소장은 “한국의 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신도수가 많은 한국불교가 한국의 대표적 종교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불교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극복방안을 도출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대 예술문화진흥연구소, 학술회의 개최

불교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 모색하는 자리 열려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소장 박상진)는 7월 10일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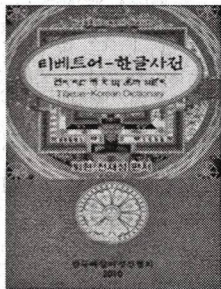
전통공연예술연구소(소장 김승국)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역사를

통한 불교문화예술의 진흥 방안 모색(김승국)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복원-불교무형문화의 자산과 콘텐츠 가치에 대한 주목(구미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연구실장) △법회 의식곡 문제점 개선(전통공연예술연구소) △불교 전통공연예술의 현황 및 발

티베트어-한글사전 첫 발간

전재성 회장, 3만7천여 어휘 수록

티베트어 발음기호·사성표기 정리



▲ 티베트어 한글사전

“8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도의 많은 스님들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초기 경전을 들고 티베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경전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됐는데, 티베트어를 알아야 원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초 《티베트어-한글사전》이 발간됐다. 한국빠알리사정협회 전재성 회장에 의해서다.

그는 1980년대 독일 본 대학에서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티베트어-한글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승 불교의 주요한 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나 범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티베트어가 철자와 다르게 발음되고 철자법 또한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티

베트어 철자법에 대한 음성학적 발음체계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도의 많은 스님들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초기 경전을 들고 티베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경전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됐는데, 티베트어를 알아야 원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초 《티베트어-한글사전》이 발간됐다. 한국빠알리사정협회 전재성 회장에 의해서다. 그는 1980년대 독일 본 대학에서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티베트어-한글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승 불교의 주요한 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나 범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티베트어가 철자와 다르게 발음되고 철자법 또한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티

베트어 철자법에 대한 음성학적 발음체계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도의 많은 스님들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초기 경전을 들고 티베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경전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됐는데, 티베트어를 알아야 원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완하고 부족한 용어 5000여 어휘를 첨가해 총 3만7000여 어휘의 사전 완성을 완료했다.

《장한대조라짜구어사전》 기초 번역을 3분의 1정도 한 상황에서 컴퓨터 조작 실수로 입력된 과일이 지워지기도 했다. 또 티베트어 폰트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재정적인 후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전 구입할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기도 했다.

《티베트어-한글사전》에는 ‘회현(전재성 회장의 호)식’ 티베트어 발음기호와 사성표기가 정립돼 있다. 간단한 티베트어 회화와 티베트 역사 및 달라이 라마 계보도 수록돼 있다. 사전 발간에는 티베트어 입력 및 감수를 맡은 편집집행 스님과 중국어 번역을 한 노성화 씨 등이 많은 도움이 됐다.

전재성 회장은 “초기 불교경전인 ‘팔라니까야의 현대적인 한글화’에 무엇보다 크게 기여한 것은 티베트대장경에서의 불경 언어”라며 “티베트불교 용어는 중국의 격의화된 불교용어보다 불교 기본적 술어의 원형적인 의미를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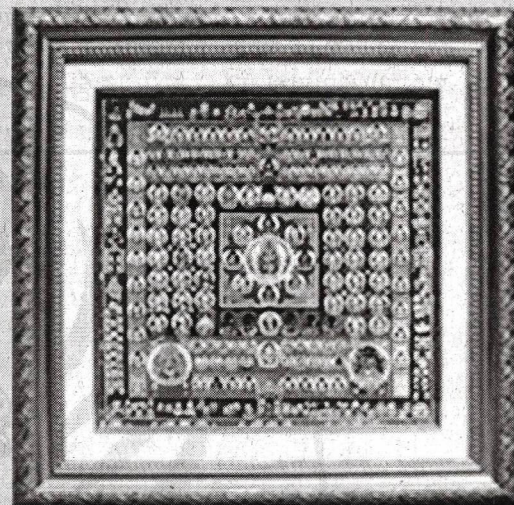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어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정대팔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정행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정행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정행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연결선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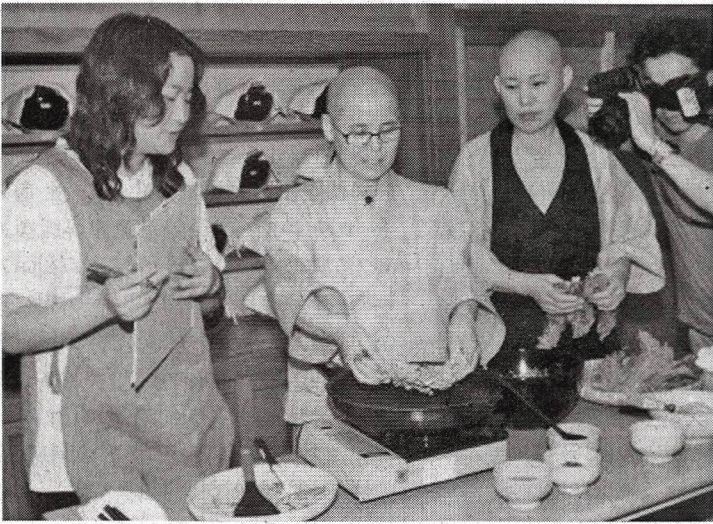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사찰음식 대중화 · 세계화 주력할 것

2010년 대구 · 경북지역 사찰음식현황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사찰음식연구단 대구 · 경북지역 사찰음식현황조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7월 1일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에서 '2010년 대구 · 경북지역 사찰음식현황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부는 2010년 사찰음식과 관련한 사업 소개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지역현황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사찰음식연구단 김유신 총괄 팀장은 "특히 이번 2010년은 지역조사연구와 더불어 대중화와 세계화 3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김유신 팀장은 "2009년은 대전 · 충청지역 대상으로 지역 조사만 이뤄졌지만, 2010년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현재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 및 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방안이다. 또한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음식문화축제, G20회의 기념행

사, 다양한 문화콘텐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찰음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및 한국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해 9월 20일 미국 뉴욕과 맨해튼에서 '2010 뉴욕 한국 사찰음식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뉴욕 행사에는 미국 정계, 각 언론 관계자 및 유명 요리사들을 초청해 한국 사찰음식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21세기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콘텐츠이다. 사찰음식은 전통적인 우리 음식문화와 더불어 문화적 자산 가치를 간직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문화콘텐츠로서의 효용성 가치가 높다"며 "앞으로 이런 사찰음식을 널리 전양해 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부는 대구 · 경북지역 989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마쳤으며, 선별된 239개 사찰 중심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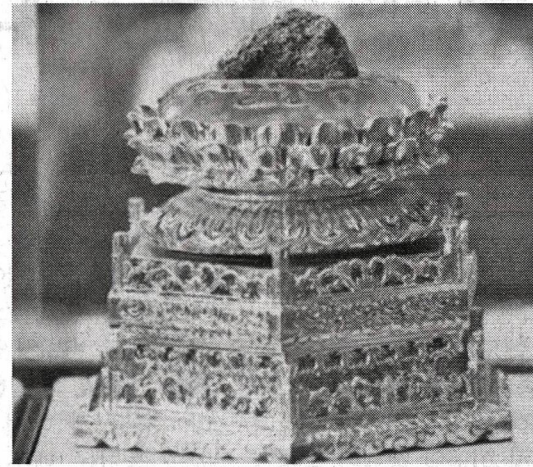
한편 문화부는 이날 현황조사 및 사업 소개와 더불어 연구조사의 핵심인 현장방문을 최초로 공개했다. 문화부는 동화사 산내암자인 양진암을 방문해 양진암에서 즐겨먹는 상추전을 소개했다. 상추전은 양진암에서 스님들이 목욕 · 삭발일에 별식으로 즐겨먹는 음식이다.

양진암 정목 스님은 "산중에 간식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님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전을 즐겨먹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스님이 식재료를 채취해서 가공하는 과정, 조리 과정 등을 기록해 데이터하는 과정들을 모두 공개했다.

정목 스님은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찰음식을 전수해 줄 스님들이 너무 적다. 후대에는 정말 전통사찰음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사찰음식을 자료화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中, “부처님 두정골 사리 발견”

100년만에 발굴, 관영통신 13일 보도



▲ 황금으로 된 보관함의 맨 위에 얹지 손톱의 2~3배 크기로 놓인 것이 사리다.

부처님 두정골(頭頂骨) 사리가 1000년 만에 발굴돼 6월 12일 봉안식을 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리는 창간(長干)사 지하궁에서 발굴돼 2년간 난징박물관이 보관해왔다. 난징박물관은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大報恩)사 유적 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가왕탑을 제작,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사리와 감응사리, 제성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창간사 지하궁 발

굴에 나선 난징박물관은 2008년 11월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가왕탑을 찾아냈고 이 탑 안에 금관과 은관에 보관돼 있던 부처 두정골사리 등도 발굴했다. 지하궁에서는 또 부처 정골사리 안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리가 북송으로 건너와 경전 번역 작업을 했던 복인도 스님으로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불렸던 시호(施護) 스님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두정골사리가 보관됐던 아소가왕탑 역시 석가모니의 출생과 성불, 열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혜초 스님 <왕오천축국전> 한국 온다

세계 최초 일반 공개, 12월 17일부터



▲ 일반에 최초 공개될 예정인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혜초 스님(慧超 ·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283년 만에 한국에 온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7일~2011년 3월 말까지 개최되는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맞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는 <왕오천축국전>

을 전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오천축국전>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리오(1878~1945)가 중국 둔황(敦煌) 막고굴에서 발견한 지 102년 만이다. 현재 <왕오천축국전>은 열람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친 전문연구자만이 볼 수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청을 받은 후 17일 대외승인심의회의를 거쳐 24일 대외결정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세기 초 쓰여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 여행기로 7세기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4세기 <이븐 바투타 여행기>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힌다.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은 앞뒤가 훼손된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필사본이며, 총 227행으로 남은 글자는 5893자다.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펠리오가 구입한 둔황 막고굴 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909년 12월 10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왕오천축국전> 발견에 대해 보고했다. 1915년에는 일본 다카구스 준지로에 의해 혜초 스님이 산라 승려임이 밝혀졌다. (02)2077-9278

불교총전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천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여러 경전 중 그 핵심을 가려 뽑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총전

국판/정가 3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육자대명왕진언(육마니반메춤)의 유래와 공덕을 철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정가 7,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총지중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정가 1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입교개종 △교의대강 △육마니반메춤 △총지중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칼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중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중

변형국판/ 불교총지중 출판부

안상수 의원, 명진 스님에 유감표명

21일 당 대표 출마회견서 “심려끼쳐 유감”

봉은사 직영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불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비판을 받았던 안상수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안상수 전 원내대표 6월 21일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봉은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려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승려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이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안 전 대표가 봉은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은사 사건과 관련해 명진 스님과 김영국 거사가 제기한 (외압설) 발언 내용은 지난해 11월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명진 스님을 직접 만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제 뜻을 표명했다. 이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3월 명진 스님은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전환과 관련해 안상수 전 대표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종단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어떤 외압도 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한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안상수 의원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는 대신 이등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참회를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7월 4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안상수 前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에 대해 흡족

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떨어진 도덕적 수준을 감안하면 그 정도 표현도 도덕적이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등관 홍보수석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고발 건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봉은사 부처님을 찾아와 108배 참회하고 마음 상한 신도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참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한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복원된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의상대 개축 복원

해풍에 의한 기둥 부식과 붕괴 위험 등으로 지난해 8월부터 해체복원공사를 펼친 양양 낙산사 의상대가 최근 새롭게 복원됐다. 낙산사와 양양군은 총 4억6000만원을 들여 의상대의 축대돌을 자연석으로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기둥과 지붕을 보수하고 단청작업도 펼쳐 최근 낙성했다. 낙산의 상징 의상대의 진면목이 되살아났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의 참관기(下)

“한일불교대회, 진정한 문화교류의 場 되길”

화 령

(총지중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이글은 화령 교육원장이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다녀온 소감을 엮은 글이다.

▲ 진언종 교육의 중심 지적원

넷째 날도 역시 교토에 있는 사찰을 방문했다. 오전에 방문한 곳은 진언종 지산파(智山派)의 총본산인 지사구원(智積院)인데 이 절 또한 교토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산파는 전국에 3000여개의 말사를 거느린 진언종의 한 갈래로서 이곳 지적원은 승려교육과 함께 학문을 중시하는 절이다.

홍법대사 공해(空海)가 중국에서 밀교를 받아들여 일본에 전한 후 300년이 지났을 때 공해가 개산한 교야산의 종풍이 쇠미할 무렵 카쿠반(覺?; 1095~1143)이 교야산에 올라 그러한 사정을 보고 개탄하고는 전법대회를 부흥하여 교학진흥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후 카쿠반은 학도들을 양성하고 교학을 진흥하여 '신의(新義)'라는 진언교학을 확립하게 된다. 그래서 지산파에서는 공해를 개조로, 카쿠반을 흥교대사(興敎大師)로 받들어 모신다. 그래서 두 스님의 조상(彫像)이 금당(金堂) 좌우에 모셔져 있다. 가운데에는 밀교의 주불인 대일여래가 모셔져 있다.

지적원은 명치유신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학이 강한 밀교사찰로서 발전하다가 명치유신을 계기로 온갖 박해를 받던 중 1882년 금당이 전소되고 근래에 다시 지어졌다. 절의 곳곳에 나름대로 엄격한 가풍이 보이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의 대부분의 사찰은 본존이 어둡게 숨겨져 있는데 반하여 지적원은 밀교 사찰답게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불단이 꾸며져 있었다. 특히 스님들의 법복이 보라, 초록 등 매우 화려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적원은 에도시대에는 진언종 이외의 다른 종파도 받아들여 500명 이상의 승려들이 항상 공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곳의 정원은 중국의 여산(廬山)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름난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한다.

일본 정원은 깔끔하기는 하지만 너

가람이 전소되었다. 1967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일본도 자중지란에 의한 전란으로 목조건물이 많이 소실되고 실화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들이 드물다. 유일하게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탑은 매우 아름다운 목탑이다. 마주보고 서 있는 서탑은 1981년에 복원되었다고 하는데 동탑과 달리 화려함을 한껏 뽐내고 있다.

탑은 모두 3층탑이지만 모코시(裳階)라는 차양칸이 달려 있어 실제보다 층이 많아 보인다. 이 차양칸 때문에 사람들은 용궁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류구즈쿠리(龍宮造)라 불렀다고 한다.

본당인 금당에는 동방유리광정토의 교주신 약사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는 월광보살, 오른쪽에는 일광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져 있었다.

이 삼존불도 모두 일본의 국보라고 한다. 나라지역의 건축물이나 불상은 아무래도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친근감이 간다.

국보로 지정된 성관음보살상도 내가 보기에는 완연한 백제풍인데 이들은 그러한 표현을 굳이 외면하고는 굽타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다. 그 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굳이 중국에 끈을 대어 바로 직수입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나 보다.

일본인들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 서민은 칭찬을 아끼고,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는 왜곡과 함께 한반도의 영향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

로 보아 이들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콤플렉스는 쉽게 제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를 가깝고 먼 나라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역사사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부처님의 십대제자의 모습을 현대적 기법으로 조각해 놓았는데 아주 실감이 나도록 잘 조성되어 있다.

▲ 일본 최초의 절 사천왕사

일정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사카의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방문했다. 사천왕사도 그동안 여러 번 방문 기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늘 일정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오사카를 여러 번 왔어도 방문하지 못했던 곳인데 오늘 드디어 구경하게 되었다.

사천왕사는 일본 불교의 막을 연 성덕대자(聖德太子)가 최초로 지은 절인데 593년에 건립되었다. 아스카(飛鳥; 일본 고대 국가의 수도 이름) 시대에는 일본이 중국이

는 백제의 기술자들을 모셔다 지었다.

일본에는 당시에 이런 절을 지을 건축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때에 모셔져간 기술자 중 한 사람이 공고 시게미츠(金剛重光(한국명 유중광))라는 사람인데 절이 완성된 후 성덕대자는 절의 유지와 보수를 이 분에게 맡겼으며 이후 1400년 동안 이 가문에서 사천왕사를 관리하고 보수를 왔다는 것이다.

이 절은 시텐노지라고 하여 그 양식이 백제의 가람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 사원의 모습을 짐작하려면 사천왕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성덕대자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고구려의 혜자(慧慈)스님과 백제의 혜충(慧聰)스님이다.

성덕대자가 일본 불교의 서막을 열고 지금까지도 일본 불자들의 지침이 되는 17조 헌법을 제정하여 삼보귀의와 불교 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고대의 훌륭한 스님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 후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이 행사가 상당히 활기를 띠었는데 한중일불교교류대회가 생기고부터는 갈수록 열기가 식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이 대회가 과거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불교인들의 대회였을 것이다. 아직 중국불교가 등장하기 전이라 한국 불교계가 외국의 불교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일본과 교류하는 길 밖에 없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일반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를 명분으로 바깥바람도 쉴 수 있었을 테고 불교인들의 안목도 넓힐 수 있었을 테니 이 대회의 권위가 상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고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한중일 3국이 교류하는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생기고부터 무척 중심이 그리로 옮겨 간데다 한일불교문화교류는 좀 시들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다.

교류를 시작한 지 30년이면 벌써 한 세대가 지날 시기인데 너무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나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처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끼리 따로 앉아 대화도 없이 만찬장에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통역을 군데군데 배치하더라도 양국 불교도들이 의미 있는 대화도 좀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우의도 짝뜨게 될 것이다. 사찰 방문을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방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대회 참가자들이 문화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양국 간 문화교류는 요원한 일이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양국 불교도들이 일반인들에게 내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하여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진정으로 양국의 불교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하여 양국 불교도들이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약사사의 동탑



▲ 불단 앞에서 기원드리는 모습.

부터 문물을 받아들여려고 애쓰던 때인데 한반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소가 씨족과 이를 반대하던 모노노베 씨족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성덕대자는 소가 씨족을 지원했는데 싸움에서 이기면 반드시 그 은덕으로 절을 지겠다고 사천왕에게 기원했다. 그 결과 소가씨족이 이기고 성덕대자는 약속대로 사천왕사를 지었던 것이다. 절을 지을 때도 성덕대자

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 외에도 나라와 오사카 지역의 불교 유적에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일본인들은 또 얼마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을지. 시간이 넘쳐나면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 불교의 상이성과 동질성을 심도 있게 비교해보고 싶었지만 4박 5일간의 아쉬운 일정을 이렇게 보냈다.

룸비니 티벳사원 개원법회 참석 및 인도 불교 4대 성지 순례

불교종지중에서는 독일 랑텐센터에서 초청한 룸비니 티벳사원 개원법회 참석과 인도 및 네팔의 4대 성지를 순례합니다. 독일 랑텐 센터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사원의 개원법회에는 달라이라마께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룸비니 최초의 티벳사원개원법회와 불교의 4대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정 -

* 순례기간 : 2010년 12월 6일(월) ~ 12월 16일 예정 (10박11일)

* 예상경비 : ₩ 2,400,000 (모집인원 선착순 16명)

* 주요일정 : ■ 룸비니 개원 법회 참석

■ 최초의 성지 보드가야

■ 최초로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 녹아원

■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라

■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 기원정사 및 죽림정사 방문

■ 삶과 죽음의 무상의 현장 갠지스강

■ 마야부인 제도를 위해 천상으로 오른 천불화현탑

■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타즈마할, 아그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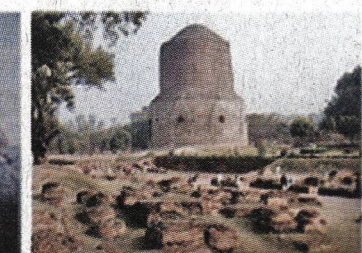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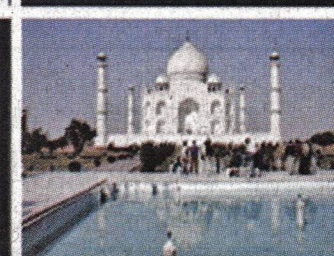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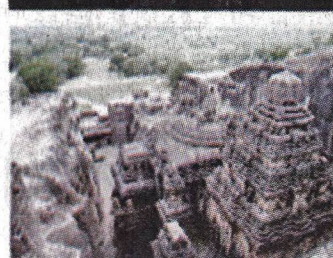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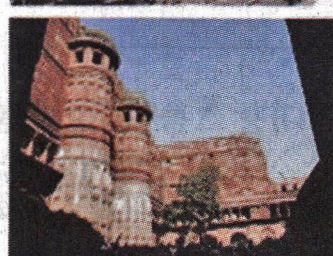
■ 인도 국립박물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본 행사의 일정과 경비는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불교종지중 통리원 T.02-552-1080~3(담당 : 배공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불교종지중 통리원



천년 불패(不敗)의 나라 - 영국/ 문화 예술의 나라- 프랑스

이 인 성

(총지사)

2010년 5월 22일 모두투어의 우리일행 고등학교 동창 부부와 23명은 오후 1시 반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갔다.

인천에서 런던까지는 약 12시간 비행을 하는데 런던의 시차는 서울보다 9시간 빠르고,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말부터 10월말까지는 8시간 빠르다.

● 영국

365일 중 300일이 날씨가 나쁘다. 자동차의 운전대는 오른쪽에 있으며 면적은 대한민국 남북 합한 것의 1.2배이다. 1500년경부터 전세계 40%를 지배했다. 인구는 6000만명이나 교민이 4천만명으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교민이 많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

평야가 80%이고 목축업을 하고 있다. 식량 자급율이 150%(참고로 한국

라 하며 귀족 칭호는 위로부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기사이다.

옥스퍼드는 수도원으로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창술, 마술, 검술을 배우며 럭비, 축구, 권투를 배운다. 옥스퍼드 미국 분교가 하버드 대학교이다.

수도원에는 부인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돈이 넘쳐 난다. 명주(名酒)의 비법이 수도원에 있다. 담배 한 갑이 14,000원으로 모든 물가가 비싸다. 소고기는 1kg에 6,000~34,000원이고 명품은 한국의 절반 가격이다. 영국과 독일은 피가 60%가 같으며 프랑스와는 양속지간이다. 집에는 대개 정원이 있으며, 겨울에 영상 4도 정도로 춥지 않고, 덥지도 않다. '에비앙'이라하여 만 년전 빙물을 정수해서 마신다.

'마그나카타'라 하여 모든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천 년동안 사법부의 부정이 없었다. 도로는 삼백년 넘은 마차 도로라서 좁다. 유럽의 3대혁명인 종교, 공화정, 산업혁명

관여를 안하고 그래서인지 거부들이 런던에 많이 산다. 건축규제가 까다로와 마음대로 집을 못짓는다.

로마사람으로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대주교가 국왕보다 부자이며 귀족들은 무장들이다. 상인, 군인들이 나쁜짓을 많이 한다.

영국의 국기는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이다. 14개 국가에 총독을 파견했다. 해롯이 1823년 설립한 백화점인 버버리는 매장길이가 400리길이다. 20kg 다이아몬드가 박힌 샌들이 3일만에 70억원에 팔렸다 하며, 버킹검 팔레스는 1700억짜리가 네 채나 있다.

세계 3대박물관의 하나인 대영박물관은 귀족들의 기증으로 지어졌다.

우리 일행은 버킹검궁, 대영박물관, 타워브리지, 벨슨 제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트라팔가 광장, 국회의사당과 시계탑 빅벤,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축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돌아 보고 세인트 파크라스 역으로 이동했다. 초고속 해저 열차인 유로스



▲ 영국 템즈강 타워 브리지에서 고교 동창과.

않아 농사짓기에 딱 좋은 기후이다. 여름에 30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짜증스럽지 않다.

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기둥 아래 부분에 무명병사의 무덤이 있다.

◆ 상제리제 거리

파리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 거리고 화려한 조명은 여행자들의 눈을 황홀하게 만든다. '엘리제의 들판'이라는 뜻을 가

진 상제리제 거리는 개선문 앞에서 시작해 콩코트 광장까지 이어진 2km의 화려한 거리이다.

◆ 에펠탑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에펠탑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세워졌던 임시 구조물이었다. 에펠탑의 설계자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참여했던 귀스타프 에펠로 철근을 노출시킨 독특한 구조물을 만들어 냈으며 300높이에 12,000개의 철재재료와 250만개의 고정리벳을 사용했다.

◆ 루브르 박물관

유럽 3대 박물관으로 불리는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이민족들로부터 시 태성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12세기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궁전으로 개축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3년 처음 미술관으로 변모되었다. 한편 지금과 같은 규모가 된 것은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부터 1997년까지 벌였던 사업의 결과이다.

(다음에 계속)

영국, 천 년 간 사법부 부정 없어 프랑스 상제리제 거리, 여행자 눈 황홀케

타를 탑승하여 런던을 출발, 프랑스 파리북역 도착 후 호텔에 투숙했다.

● 프랑스

◆ 간단한 현지어

- 안녕하세요 : 봉쥬르, 봉스와
- 감사합니다 : 맥씨
- 천만에요 : 쥘리 정프리
- 미안합니다 : 데졸레
- 실례합니다 : 엑스쥬제 므아
- 네 : 위
- 아니요 : 농
- 얼마입니까 : 콩비엥 싸꾸뜨

프랑스 인구는 6,000만명, 대(大) 파리 인구가 1,000만, 소(小) 파리 인구는 250만명이다. 영국은 게르만족이고, 프랑스는 라틴족이다. 물가는 한국보다 2.5배 정도 비싸고 1년에 관광객이 1억명 정도 다녀간다. 여름에 그다지 덥지 않고 겨울에 그리 춥지

▶ 유로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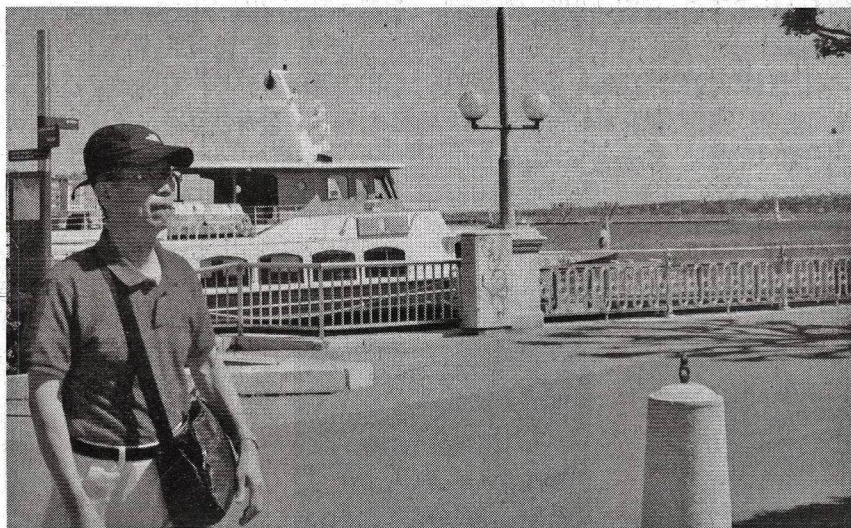
프랑스와 영국사이 도버해협의 해저터널을 통과, 파리북역, 킬 런던구간을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 페제베(TGV)

25년 이상 프랑스 전역의 많은 도시를 연결하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되어 있다. 또 파리를 기점으로 유럽의 주요도시인 스위스, 제네바, 로잔, 취리히, 이탈리아 밀라노, 토리노, 벨기에, 부뤼셀 등을 연결한다.

▶ 개선문

나폴레옹이 1806년 오스텔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 중앙에 세우도록 건축가 살 그랑에게 명령하여 30년 뒤인 1836년에 완성되었다. 문 안쪽에는 여러 전쟁에 참전한 장군들



▲ 영국해협 앞에서 필자.

은 34%)이다. 날씨가 나쁜 관계로 영국 음식이 발달하지 못했고 중국, 이태리, 인도 식당이 많이 있다. 주로 양육, 귀족들이 프랑스 요리사를 데려왔다. 3살때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젠틀맨(gentleman, 기사)이

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평지라 트랙터 운행이 가능하며 한 사람당 평균 200만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바이킹족이 통일을 했고 천 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국가이다.

금융, 보험, 선물로 먹고 살며, 몇조를 갖고 입·출국을 해도 정부에서



▲ 파리 개선문 앞에서.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중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 락 처 : 이 연 수 단 장

02)552-1080~3(대)



사찰순례/황룡사지 12

밀교호국신앙의 발원지 황룡사

신라 삼보 중 장육존상, 9층대탑 건립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하다가 말하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첫째는 황룡사 장육존상이요, 둘째는 황룡사 9층대탑이요, 셋째는 진평왕의 천사옥대이다”라고 했다.

● 황룡사 9층 대탑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 때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접견한 자장스님은 갑자기 나타난 신인(神人)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황룡사에 9층대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9개국의 아만족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왕업이 태평할 것

황룡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9층 목탑지에는 지금은 초석만 남아 과거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각 초석은 지름이 약 1미터 내외로 사방에 8개씩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 심초석(중심 기둥의 받침돌)이 있다. 이 탑은 문헌에 따르면 탑신부 약 65미터, 상륜부 15미터로 전체 80미터에 이르며,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25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기둥 속에는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 등을 봉안했다고 한다.

탑지를 발굴한 결과 건물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 20m이고 사방 7칸씩으로 모두 64개의 장대한 초석과 한 판에 심초석이 드러났다. 이러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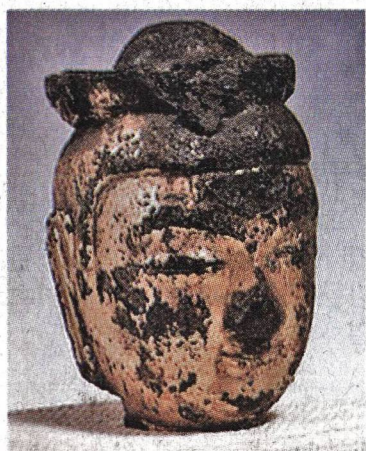
되었다.

황룡사지에는 백제사람 아버지가 국경을 초월해 서라벌 터전 위에 제일의 목탑을 이룩한 것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운지 23년 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 멸망 후에도 황룡사는 고려 왕조에 이어져 깊은 숭상과 보호를 받았으며 9층대탑의 보수를 위해 목재까지 제공받았다. 그러나 1238년(고종 25) 몽골군의 침입으로 탑은 물론 일체의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

● 황룡사 장육존상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에 있었던 신라시대의 불상이다. 신라 국찰(國刹) 황룡사에서 주조하였던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인 이 불상은 고려 때 몽고의 침략으로 흔적조차 없어지고 현재는 이를 받치던 석조대좌만 황룡사 금당지(金堂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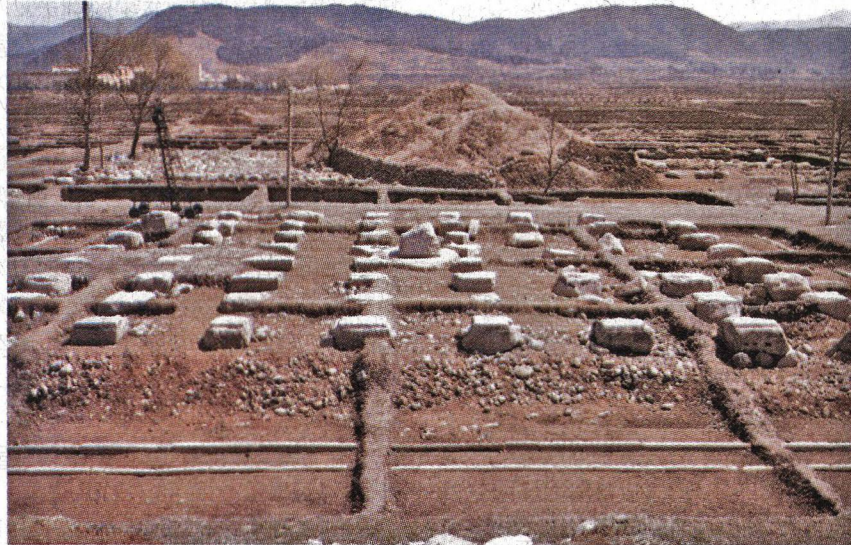


▲ 사지 출토 금동 불두.

에 남아 있다.

황룡사지 입구에 있는 우물터를 지나면 장육존상이 있던 곳이 보인다.

황룡사 장육존상은 573년(진흥왕 34년) 10월 17일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574년 3월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인도의 아쇼카왕(阿育王)이 보낸 황금과 동으로 모형 석가삼존상을 본보기로 삼아 문림림(文林林)에서 장육존상을 단번에 주조하였다는 기록



▲ 황룡사지에 드러난 주춧돌.

이 전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소카 왕이 석가삼존불을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인연이 있는 국토에서 장육존상이 조성되기를 축원했다고 한다. 이에 황금 3만 분과 황철 5만 7,000근, 석가삼존의 모형을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웠는데 경주에 이르러 574년에 불상이 완성되었다 한다. 이 장육존상은 이듬해 왕이 돌아갈 것을 미리 알고는 눈물을 뿔뿔히 흘려 땅을 1척이나 적셨다고 한다.

현재 금당지에는 장육존상과 두 개의 협시불을 모셨던 대좌석이 남아 있다. 또한 이들 삼존불 대좌석 동서쪽에 나한상, 천왕상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4개의 불대좌석의 흔적이 남아있다.

황룡사 금당지 중심부에는 자연석으로 된 큰 돌이 세 개 남아 있는데, 그 모양과 크기로 보아 장육존상은 입상으로 그 높이가 5미터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육존상의 무게는 3만 5007근인데 황금이 1만 198분(分)이 들었고, 두 보살상은 철 1만 2000근과 황금 1만 136분이 들었다고 할 만큼 거구의 금동삼존불상으로 파악된다. 장육존상의 높이가 1장 6척이므로 4.5~5m 사이의 우람한 상이 될 것이다.

삼국유사 기록대로 석가삼존상(釋

迦三尊像)으로 중앙에 석가불, 좌우에는 문수(文殊)·보현(普賢) 보살로 생각된다.

이 불상은 1238년 몽골 침입 때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인도의 아소카 왕이 불상의 견본을 보냈다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이국적인 불상 양식을 반영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의 양식은 거의 알 수 없지만 일단 전(傳)황룡사금동불입상과 비슷한 양식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양식은 중국의 북위말 내지 동위·서위 양식과 비견되는

것으로 고구려의 경4년명금동불입상과도 친연성이 짙은 것이다.

이러한 양식에 북제(北齊)·북주(北周)의 특징을 가미한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 전황룡사금동불입상보다는 다소 진전된 양식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소카왕이 석가삼존상 모형을 보냈다는 전설을 고려한다면 인도의 굽타 양식 불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인도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6세기 후반기에 새로 유입된 굽타 양식 불상의 영향을 능후하게 받아 제작되는 작품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대좌는 장육존상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유품이다. 자연 그대로 생긴 바위의 윗면을 일단 평평하게 고른 뒤 장육상의 발이 들어갈 수 있게 홈을 파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꼭지의 홈도 파다. 앞부분이 넓고 뒤로 갈수록 좁은 형태이다. 이러한 모양은 좌우 협시대좌도 거의 비슷한 편이다.

‘신라가 곧 불국토(佛國土)’라는 신라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성된 이 장육존상은 신라 삼대 국보의 하나로서 장대한 위용의 최대 걸작품으로 추정된다.



▲ 출토 유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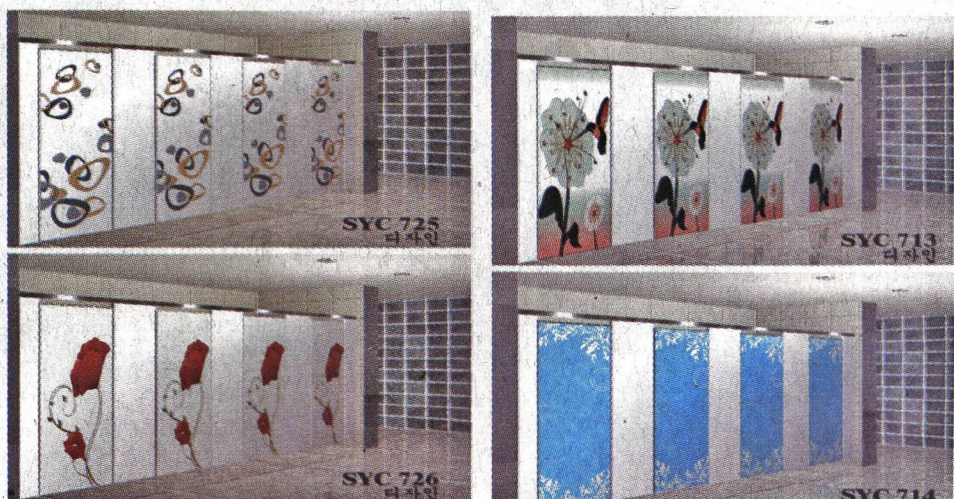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신양큐비스』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큐비를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건본 : 화장실 내부 칸막이

대표 김 한 옥

Mobile. 010-8953-2304

E-mail, okkimy@paran.com

http://www.sycubis.com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51-8

TEL. 031-403-7395~6

FAX. 031-403-7349

〈서울총지사 교도〉

신 양 큐 비 스

큐비를 생산 / 판매 / 시공